

## “퀴어축제 축복식 참여 6인, ‘교리와장정’ 부정하는 범과”

기감 동대위 8일 규탄 성명... 소속 연회 동대위가 고발할 것 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기감 동대위)가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기감 중부연회 사무실에서 지난달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기감 소속 목회자 6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감 동대위는 이들 6인에 대해 각 연회별 동대위들이 기소위원회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동환 씨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해 정직 판결을 받고도 또 동성애 찬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기감 교단에서 최종 출교조치를 받았다.

기감 동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기감 소속 목사 6인이 동성애축복식에 참여해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는 반성경적이며 기감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난 3월 기감은 지난 2019년 인천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한 이동환 씨를 출교판결 했다. 이것은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축복식을 한 행위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정면 부정하는 범과임을 밝히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감 소속 목사 6인이 (올해 서울퀴어축제) 동성애 축복식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는 매우 의도적 행동이었다”며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심각한 잘못이며 범과”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기감 총회 동대위에선 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감 동대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목회자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며 “그런데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들은 그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고, 출교된 이동환에 이어서 축복식을 진행했으므로, 이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각 연회별 동대위 관계자들이 김찬호 감독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또한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범과의 종류로 규정해, 이에 해당 시 교리와 장정 1405단 제5조 3항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이 범과라고 분명히 ‘교리와 장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기감 목사들이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감리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출교된 이동환 씨를 제시하면서

“경기연회 재판부와 총회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동성애 축복식은 범과라는 것이 분명한 판례로 남았다”며 “그럼에도 기감 목사 6인이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것은 교단의 재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즉각 축복식을 사죄하고 감리교회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 동대위는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행한 기감 목사 6인에 대해 각 연회에서 동대위원장의 명이나 전 동대위원장-소속연회원이 직접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동환 씨의 동성애 축복식을 지지 서명한 목사들도 각 연회 자격위원회에서 자격을 다뤄줄 것을 청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감 동대위원장 김찬호 목사(중부연회 감독)는 기감 교단 내부의 동성애 인식을 묻는 질문에 “평신도의 90%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목회자의 경우 동성애 반대 비율이 70%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평신도와 목회자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 찬성자들은 언론을 통해 동성애 지지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퀴어축제의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들은 출신교단이 기감뿐 아니라 다양하다”며 “기감이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 6인을 바르게 처리한다면, 다른 곳도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면 한국교회는 거룩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UMC 교단의 친동성애적 흐름이 한국 기감 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UMC 교단의 교리와장정엔 ‘동성애 반대’를 적시했었으나, 동성애를 지지한 목회자에 대해 엄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감은 미국 감리교처럼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찬호 감독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씨에게 최종 출교판결을 내린 기감 총재위의 판례는 하나의 방향타를 제시한 것”이라며 “기감이 퀴어축제 축복식 참여 등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면,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낙인찍혀, 결국 복음적 교인들은 떠나고 기감 교단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찬동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동성애자를 모두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랑’이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나왔다”며 “동성애, 불륜, 이단 등 불의를 배제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이다.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복구 사업’ 진행 중인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중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복구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8일 열린 상임회장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두 차례 강타한 대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약 5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11만 명의 부상자, 약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터뷰] 광고협 대표 회장 이종석 목사 >> 2면

인도 총선, 기독교 박해에 미칠 영향은? >> 7면

김영국 목사 “친구가 쓴 칭찬의 글” >> 22면

이에 한교총은 튀르키예에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36개 회원 교단과 함께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을 통해 약 52억 원을 모았다.

이 가운데, 14억 원은 지진 피해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 구호와 교단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긴급구호 자금으로 지원됐으며, 38억 원은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한교총은 모금된 성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난해 현지에 답사단을 파견, ‘튀르키예개신교회연합(TeK)’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호사업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교총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 및 복구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튀르키예 내에서도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말라티야(Malatya)’와 ‘아디야만(Adiyaman)’, ‘하타이(Hatay)’ 지역 등이다.

먼저 ‘말라티야(Malatya)’에는 튀르키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곽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현지 지자체와



한교총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했다. ©한교총

협력, 18가정을 선정해 임시 거주할 컨테이너 숙소 제공과 생필품 및 식료품 등의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했다. 또한 말라티야 외곽의 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을 위해 낙후된 난방시설과 지붕을 교체하고 페인트칠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말라티야(Malatya)의 ‘PCK 한국 친선 마을’에 문화센터를 건축 준

공해 장애 및 트라우마 치료센터와 아동 돌봄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아디야만(Adiyaman)’에서는 내진 건축 자재를 사용해 교회당과 커뮤니티센터를 겸한 건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PCK 한국 친선 마을’의 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향후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컴퓨터 교실, 도서관 및 지역 주민의 모임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며, 유사시에는 주



한교총이 튀르키예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센터를 준공했다. ©한교총

민들의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하타이(Hatay)’다. 하타이의 중심지는 ‘안타키아’로서, 이곳의 한국어 표기는 ‘안디옥’이다. 안디옥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며, 사도 바울의 활동 근거지였다.

한교총은 하타이주 내 이스켄데론(Iskenderun)과 알티노주(Altinozu)에서

지진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 가정을 위해 하타이 알수즈 시와 협력해 부지를 지원받아 교회와 커뮤니티센터, 가정집을 건축하여 ‘한국교회 마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인 안타키아 예배당의 복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교총은 2025년 3월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 2024 국립생태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동기획전

# 공존의 섬, 격렬비열도

格 列 飛 列 島

Gyeongnyeolbi-yeoldo, Islands of Coexistence

국립생태원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4. 07. 09 Tue  
~ 09. 29 Sun

에코리움 기획전시실